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ver Story

스포츠와 도시마케팅



Contents

ID Interview

연구/원/소식



6월 대화의 시간

6월 "대화의 시간"은 현안과 제를 안고 있는 청라지역에 대한 현장을 답...

인천/나/들이



문학경기장, 집단의 기억과 체험이 함께 하는 곳
문학경기장, 4년 전 이맘 때
꿈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한국과 포르...



인천아프리에의 두번째 만남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
치는 동북아 국제도시로 개
발 중인 인천에 경제적 ...

시/정/연구



경인철도와 지역단절, 그리고 도시재생

1. 들어가며 인천은 경인
고속도로...

도/시/동/향



스포츠와 도시마케팅의 사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도
시마케팅은 ...

신/간/소/개



5,6월 신간 소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 고를 가로막고...

I ID인/터/뷰

2014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 박남규본부장과의 인터뷰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Q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는 동북아 국제도시로 개발 중인 인천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의 당위성과 유치 성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A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렀으며, 제2의도시인 부산도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도시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내외적으로 한층 성숙되고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 허브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제3의도시 인천도 이제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차례가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행사의 개최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및 민자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 시설,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시켜 구도심개발과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높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시안게임 유치성공을 위해 대외적으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회원국의 NOC(국가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임원들에게 인천이라는 도시와 우리의 열의, 비전등을 알리고 있으며, OCA 회원국을 종교나 문화, 그리고 스포츠 교류에 있어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특성상 5개권역별로 나누어 순방을 통해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이며 국내언론과 지역정치인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심을 유도하여 중앙정부 역량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Q 지난3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45회 OCA집행위원회'에서 대회 유치 전략으로 3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더불어 경쟁도시인 인도의 델리에 비해 인천의 장 단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A 지난 '제45회 OCA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우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유치 전략으로 재개발국가 아시아권 청소년들에게 경기연습비용과 숙소 등을 제공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게

만들려는 화합의 제전(Festival of Solidarity), 남북한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는 평화의 제전(Festival of Peace),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의 제전(Festival of Technology)을 마련하여 아시안게임을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그린 스포츠로 운영하고 경기의 즐거움과 실익을 모든 아시아인과 함께 나누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도시로서의 인도 델리와 비교했을 때 인도가 아시안게임 창설에 공헌하여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동안에 대회가 주로 동아시아에서 유치되어 인천유치가지역안배론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다소 불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유치활동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깔끔한 대회유치능력으로 아시아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GDP 세계11위 경제규모로 높은 국민 소득과 스포츠 강국이며 세계수준의 공향을 가지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천 유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Q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도시 결정시기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8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유치위원회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A 당초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45개국 OCA회원국들의 표결에 의해 아시안게임 유치도시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카타르 도하의 후보도시 득표전으로 인한 게임운영 차질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과 쿠웨이트에서 건설 중인 OCA 본부건설 개관식에 맞춘다는 의견이 대두돼 표결일자 연기를 검토 중입니다.

유치도시 결정시기가 늦춰지는것에 대한 불리함이나 편리함과의 관계는 미미하지만 2014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유치결정이 늦어진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시기가 연기된다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점에서 유치활동의 기초는 그대로 가되 다만 서서히 유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할 것입니다.

Q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 유치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인천유치를 위해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A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인천의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해선 관심이 많지만 아시안게임은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성공적인 대회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이루기 힘든 것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CA평가단은 시민들의 대회에 대한 지지도를 유치도시결정평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아시아인이 하나 되어 함께 여는 2014아시안게임의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이므로 우리 시민의 결집된 힘을 한곳으로 모아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I ID인/터/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오세의 회장과의 인터뷰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Q 지난해 치러진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로 어떤 일을 수행하셨습니까? 더불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예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관련 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서울88올림픽대회 자원봉사에 지원하여 주차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국제적인 큰 행사에 한 몫을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작년엔 인천의 명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주차관리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Q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이 인천의 지역경제뿐 아니라 스포츠발전과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현장에 계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내외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계기가 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지역경제가 발전되었고 국제적인 대회를 치러 낸 시민들의 의식도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치하신 분들의 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Q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어떠한 일이든지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대회준비시간이 짧아 사전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고생한 것보다 봉사활동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대회를 마친 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나 홈페이지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직접 경험하면서 국제적인 큰 대회에 한 몫을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지금,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에서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신 입장에서 볼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국제적인 대회에는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지켜보면서 사전의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 대회기간동안 관객의 참여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2014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를 위해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가 대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해야하며 대회를 치른 후에는 또 다른 대회를 우리 인천에서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대회를 인천에서 유치하여 개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치러질 많은 대회에서 또 다시 봉사하실 의향은 계신가요? 또, 시민들과 자원봉사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A 앞으로 치러질 많은 대회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봉사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물질적 금전적 보상이나 대가나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결심하셨다면 타인을 존중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의무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여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한 활동을 해주신다면 분명 더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인천/나/들이

문학경기장, 집단의 기억과 체험이 함께 하는 곳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사무처장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문학경기장, 4년 전 이맘 때 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한국과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박지성의 재치있는 슈트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골이 확정되는 순간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에게 안겼다. 국민들은 모두 환호했고 한국이 16강행을 결정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이었다.



문학경기장은 2002년 한국의 월드컵 신화를 담고 있는 곳이다. 가끔 문학경기장을 찾는다. 그러면 서도 그때의 기억은 선연한데 그 기억을 환기시켜 주는 상징물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장소는 기억을 동반한다. 기억을 통해 장소는 우리에게 살아 있는 무엇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예전에 살던 동네 등은 모두 그런 기억들이 장소와 연결되어 개인에게 표상되는 것들이다. 문학경기장은 집단적인 체험과 기억이 있는 곳이다. 그런 기억들을 잘 살려가는 일에도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쉬운 마음을 품은 채로 문학경기장을 둘러본다. 경기장 3층 문학컨벤션홀은 예식장이 있는 곳이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주차장이 넓고 교통이 편리해서 예식장으로선 안성맞춤인 곳이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 꼭 예식장이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그래도 예식장은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든다. 지하에 들어선 찜질방을 보고 아연실색이다. 경기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뚝뚝 못마땅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어린이 민속박물관이나 영화박물관도 들어섰다. 전시장도 있어서 가끔 전시가 열리기도 한다. 가을이면 이런저런 축제의 마당이 되기도 하는 곳이 문학경기장이다. 한편, 문학경기장에는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있고 SK 와이번즈 프로야구단이 야구장을 구단의 구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곳에서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고 청년협력단이 함께 방문해서 우의를 나눈 곳이기도 하다. 정문 앞 분수대와 광장이 있고 아침마다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조깅을 한다. 인공 암벽이 경기장 한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X게임장도 마련되어 있다.

경기장 건너 편으로는 인천도호부 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인천의 옛 역사를 복원해 놓은 곳인데 경기장에서 도호부 청사로 건너가기가 영 쉽지 않다. 도호부 청사에서 주말마다 다채로운 전통연희가 개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경기장과 도호부 청사는 8차선 대로로 공간이 분절되어 있다. 함께 위치하고 있지만 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도호부 청사 옆으로 남구청에서 학익 소극장 건립이 한창이다. 이곳은 얼마 전에 극단 마임이 민간위탁을 받아 건립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임 측은 이곳에서 클라운 마임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당연히 도호부 청사와 문학경기장의 공간과 함께 연계되기를 바란다. 문학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도호부청사도 오고 이곳 학익소극장도 방문하기를 바란다.



과연 그럴까?

육교도 없고 횡단보도 또한 달랑 하나밖에 없는 8차선 대로를 건너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까 의문이다. 이 분절된 공간들을 연결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문학경기장은 우리들의 일상과 여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경기장 안에 이렇게 저렇게 담겨있다. 분절되고 단절된 채로 문학경기장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2006년 춘계체육행사



2006년 5월 12일 금요일

2006.5.12 강화도 고려산 등반 2006년 춘계체육행사로 인천발전연구원 직원들은 강화도 고려산을 등반하였습니다. 등반을 하며 서쪽 능선에 있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된 3기의 고인돌을 관찰하고 낙조대에서 강화의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 방문



2006년 5월 24일(수)~26일(금)

인천발전연구원 김창섭 원장님과 4명은 본원과 2003년 11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천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을 방문해 금년도 공동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대천시 도시 시찰을 통해 동북진흥계획과 11차 5개년 계획에 의한 대천시 발전전망을 시찰하여, 인천시의 대련과의 상호협력가능성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2006년 제2차 여성정책워크숍



2006년 6월 9일 금요일 오후3시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에서는 2006년 6월 9일(금) 본원1층 대강당에서 “이주 여성 실태와 정책적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이주 여성 문제에 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금연(이주여성인권연대)대표의 사회로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이주 여성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대화의시간

2006년 6월 13일 화요일 오후2시

6월 "대화의 시간"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청라지역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생생한 현장답사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한 가운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 소각재 버크 모습 t;t;수도권매립지 수직가스관;

시/정/연구

경인철도와 지역단절, 그리고 도시재생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조상운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1. 들어가며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설치되어 서울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인천, 주안, 부평 등 역세권은 인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연수, 계산, 송도 등 외곽위주의 신시가지 개발정책에 따라 구시가지는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 12월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축)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경인전철축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인철도가 평면적으로 도시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발생하는 지역단절 및 토지이용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는 경인철도가 평면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인철도와 지역단절 문제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은 철도가 평면적으로 설치되어 시가지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인철도는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면적으로 도시중앙에 동서로 설치됨으로써 철도로 인해 구분된 두 지역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지역이 단절되는 문제를 발생한다. 이러한 평면적으로 설치된 철도와 이로 인한 지역단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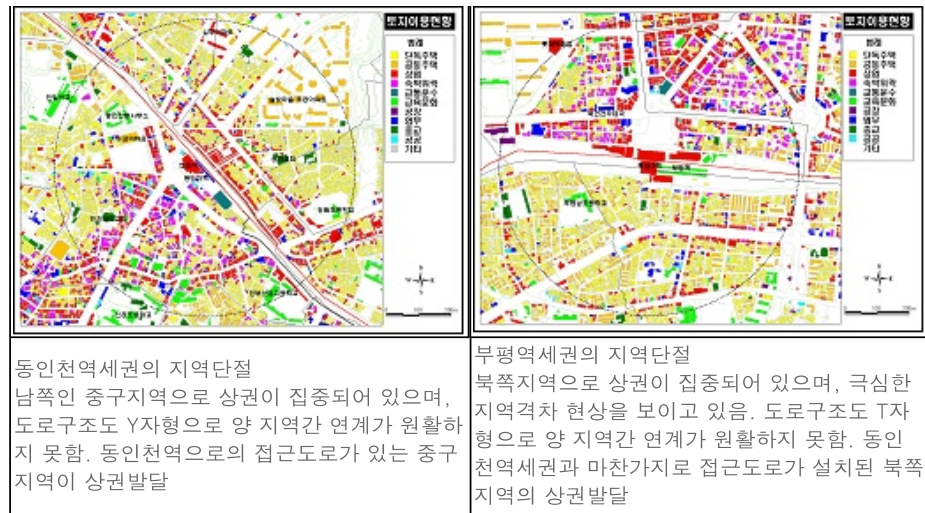
첫째, 토지이용의 불균형이다. 토지이용의 불균형은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지역만 발달함으로써 지역격차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도로체계와 관련이 깊다.

둘째, 교통흐름에 대한 장애이다. 특히, 철도역은 교통의 결절점으로서 작용하나, 철도로 인해 도로체계가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 또는 우회됨으로써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실제 경인철도변의 교통체계는 주로 철도선로를 따라 수평적으로 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고, 철도역으로의 접근도로는 철도로 분단된 양 지역을 바로 연결하지 못하고 한쪽지역으로만 연결되는 T자형, Y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인천 역세권(Y자형)과 부평역세권(T자형)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분단된 양 지역간 극심한 토지이용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는 지형 등으로 인해 도로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역으로의 접근도로의 유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행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 평면적으로 설치된 철도로 인해 보행자는 육교 또는 지하로 설치된 보행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 또한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시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육교의 경우,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높아 아동, 노약자, 장애인이 횡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개교가(부개역)



장제로 굴다리(부평역)

넷째, 도시환경 또는 경관상의 문제이다.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방음벽, 고가(육교) 또는 굴다리(지하보도) 등으로 인하여 경관상 지장을 주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들은 구조가 노후화되고 쓰레기, 악취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철도역사와 역전광장의 문제이다. 지역단절의 문제는 지역과 연계된 역사와 역전광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인철도 역사는 주된 기능인 여객수송이라는 기능에만 치우쳐 있어 단순히 철도로 분단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역사와 주변 건물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별개의 건축물로서 작용하여 역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역전광장 또한, 11개 경인철도역 중에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환승이 가능한 역전광장이 설치된 철도역은 부평역, 간석역, 주안역, 동암역, 제물포역 등 일부에 불과하며, 이것도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소규모로 설치되거나(간석역, 제물포역), 버스승강장과 역출입구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하며(부평역, 동암역, 제물포역), 보행과 차량의 충돌이 발생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는(부평역, 동암역, 주안역, 제물포역)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간석역 역전광장



제물포역 역전광장

3. 경인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방안

(1) 도로와 철도의 입체교차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의 문제는 철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교차하는 철도의 일정구간을 고가화 또는 지하화함으로써 복수의 도로와 철도의 입체교차를 실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철도를 입체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장래 시가지상에 맞는 도시계획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등)을 동시에 계획·시행하여 역세권이 일체화된 정비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역전광장이나 보행통로 등의 정비·설비

철도를 고가화 또는 지하화하는 것은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도역사와 부대시설을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단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역전광장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변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의 설치를 고려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의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데크 등의 설치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도로 및 보행의 지역연계시설의 신설 및 개선

철도변의 지역단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및 장래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연계도로의 신설 또는 기존 도로의 확폭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행연계시설의 경우 보행자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연계시설은 철도변 토지이용의 변화 및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장/리/포/트

스포츠와 도시마케팅의 사례

도시경영연구실 신성희 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도시마케팅은 “이벤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다양한 집단 및 주체를 ‘시장’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개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정책에 도입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도시마케팅 기법이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기법을 구현할 무대, 즉 하드웨어인 물리적 ‘도시’와 이 무대 위에서 흥미롭게 공연될 프로그램인 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시설의 활용

그러나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의 경기장 신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설에 개한 보수 및 개선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2002년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인 일본의 오사카 나가이 경기장이 좋은 사례가 된다. 1964년에 육상 경기장으로 건립되었으나 1996년 전면 개축되었고, 1997년 국민체육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나가이 경기장은 세 개의 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1경기장이 월드컵경기장(오사카 육상경기장, 세레소 오사카 프로축구팀의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하다면 굳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새로운 투자대신 기존 시설의 보수와 개선만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이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란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축구의 도시”, “유로2000의 도시”로 그들의 도시를 판촉하고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시¹⁾가 또 다른 예이다. 로테르담시는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선택했다. 로테르담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페예노르드 등 굴지의 축구클럽, 야구 및 탁구 클럽 등의 흙이며, 유로2000의 결승전이 열렸던 “드 쿵(De Kuip, 페예노르드팀의 홈 경기장)”을 포함한 3개의 축구경기장, 238개의 축구장, 멸실상부한 ‘스포츠의 전당’(Palace, Sportpaleis)인 아호이 로테르담(Ahoy, Rotterdam) 등 다양하고 튼튼한 스포츠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991년 도시 마케팅의 주도적인 추진 기관인 로테르담 탑스포트(Rotterdam Topsport)를 설립하여 스포츠 기반시설 관리 및 이벤트 유치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로테르담시는 “스포츠의 도시 로테르담”이라는 커다란 명제 아래,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건강한 스포츠의 도시로 키워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기반 시설의 강화와 지역사회의 화합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장을 포함한 새로운 시설의 건설과 투자에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존 시설의 보수와 개선으로 이벤트의 성공과 도시 기반시설의 강화를 동시에 이뤄낸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이 아닌, 도시 발전을 위한 투지 계획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도시정체성 강화와 이미지의 재생산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단순한 경기들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도시의 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려 고유한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성을 구성하는 문화·경관·산업 등의 전 요소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비교우위를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성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지역성을 구성할 요소를 개발해 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을 부각시켜 경쟁한다면, 다른 도시와의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면서 자신의 지역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창출된 도시의 정체성은 이에 적합한 이미지 창출에 의해 구체화 된다. ‘언제나 대

규모 스포츠 이벤트 유치 가능하도록 준비된 스포츠의 도시' 로테르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민과 정부가 스포츠 기반시설의 정비 등 건강한 도시 이미지 창출에 힘쓰는 경우는 이미 앞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도시를 “광범위한 도시 제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간주한다면,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구체적 이미지 생산은 도시 판촉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 따라서 도시의 이미지 재생산은 일종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좋은 사례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를 들 수 있다. 이 도시에서 주목할 점은 특별한 스포츠 관련 기반 시설이 없음에도, 스스로가 ‘스포츠 도시’로서 정체성을 개발하여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대규모 이벤트 대신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라는 틈새시장을 노렸다는 것도 매우 전략적이었다. 지루하고 활기 없는 곳으로 평평이 나 있는 도시였던 이곳은 심지어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레이스(Indy 500)라는 자동차 경주 이벤트를 위해 일년에 한번 불이 켜지는 공동묘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 도시의 정치가, 사업가, 지역사회 지도자 등 개발의 주체들이 ‘스포츠’를 도시(특히 도심)의 이미지와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매개체로 규정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이들은 스포츠가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매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예상은 정확히 적중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스포츠이벤트의 유치와 이를 통한 도시의 이미지 재생산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이벤트의 도시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팬암게임(Pan-America Games)이나 파이널 포(Final Four, 농구)와 같은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인디애나폴리스 알리기에 힘쓴 결과, 오늘날 이곳은 ‘아마추어 스포츠의 중심지’로 대표되고 있다.



축제와 이벤트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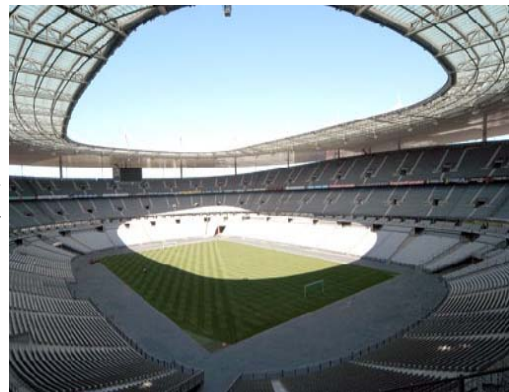
1998년 프랑스월드컵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문화월드컵”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전세계의 시선 앞에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낸 문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당당히 확인시켜주었다. 사실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 개최를 관광특수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이용한다는 계획 아래, 개최도시와 주변 지역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 축제 등의 문화 행사의 활성화를 준비 해 왔다. 10개 개최도시에서 대략 150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었는데, 모두 전통있는 도시들답게 고유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행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졌다. 프랑스의 개최도시의 지역 행사들은 월드컵이 스포츠 행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 주체와 장르들이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

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포스터]

몽펠리에의 샤를 드골 광장에서 펼쳐진 ‘Village 축제’는 특산물과 전통, 문화 등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음악과 가두연극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와 공연의 장이기도 하였다²⁾. 그리고 보도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 상품이자 이미지이기도 한 ‘와인’을 이용한 와인 축제를 열어 방문객의 즐거움을 한껏 더해주었다. 특히 낭트시는 축제와 이벤트를 매우 적절히 활용해 진정한 문화월드컵을 치러냈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면에서도 3억2천만 프랑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다³⁾. 낭트시는 국내외적으로 낭트인의 창조적 능력을 과시하여 월드컵을 만인의 축제행사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월드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대회 우승국인 브라질을 테마로 한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의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벤트들은 월드컵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행사와, 기존 행사의 활용,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자유의 길들’, ‘후원자 현장’, ‘SOS 인종차별주의 콘서트(2회)’, ‘세계 후원자 축구대회(2회)’, ‘구역월드컵’, ‘썸머페스티벌(5일간, 83회의 콘서트에 50,000명이 관람), 코메디아 델’아르테 이태리 연극, 월드컵 벽화 조성 등이 월드컵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행사들이었다. ‘낭트 코파카바나’는 가장 역점을 둔 행사로 3,000톤의 모래로 모래사장을 재현하여, 1개월간 52회의 무대 공연, 대형스크린 설치와 불거리 상영, 80개의 다양한 이벤트



등을 제공하여 총 500,000명 관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프랑스 월드컵 경기장 - Stade de France]

보르도 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프랑스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포도주를 이용한 '사향 포도주 시음 축제', 코파카바나와 함께 글로리에트 광장에도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30,000명이 결승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별 행사 외에 기존의 상시행사를 확대하여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로 경기사이사이에 관중들과 대중들이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내의 컨벤션센터와 거리 곳곳을 이용한 전시회 개최, 낭트의 여름 특산물 시장 활성화 등도 눈여겨보아야 할 좋은 예이다. 구체적인 이벤트의 종류는 낭트 카니발, 베이비 축구월드컵, 불꽃놀이 축제, 코파카바나 구슬놀이 세계대회, 비치발리 인터내셔널,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자이언트(150,000명 관람) 등이다. 또한 낭트시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그들의 축제의 종양으로 불러내었다. 청소년 구영축구. '너는 청년, 너는 축구' 훈련경기, 스콜라 풋, K-100, 아디다스 키드 풋, 생피에르 후원자 세계축구대회, 코페쿠프(문제지역)의 청소년 축구대회 등을 개최해 문제 청소년을 포함한 13,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신선한 발상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낭트의 월드컵은 1,500명의 자원봉사자, 150,000명의 기업 및 기관 인력들, 각종 협회 회원 및 임원들, 낭트 후원자 및 스포츠인사들, 상입협회, 주민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진정한 시민의 축제로 평가되고 있다.

1) Leo Van den Berg 『Sports and City Marketing in European Cities』 2000

2) 한상린외(2000), 전거서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지원연구단, 『월드컵라운드 테이블 결과보고서』 2002

신간/소개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6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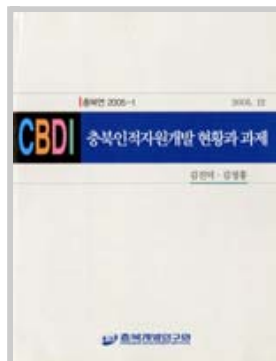
부산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방안



금성근.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의 기업입지 상황, 기업의 유출입 상황으로 볼 때, 부산지역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부산이 지닌 기업입지 기초 환경을 보완해 줄 획기적인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된 연구보고서. 먼저 기업유치 인센티브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현재 부산지역의 기업입지 현황을 파악한 후, 외국 사례를 비추어 부산지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김진덕, 김정홍. - 충북개발연구원

지식기반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충북발전을 위한 충북인적자원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보고서.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본방향을 살펴본 후, 충북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충북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분석해 보고, 향후 이루어질 충북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금창호, 한부영, 권오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도적 및 운영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충원, 보직관리,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등 4개의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 연구보고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 강화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생존 최소요건으로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